

##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인들에게 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다소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음란의 문제들, 분열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열된 충성심과 분열된 교리적 입장으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찬식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무슨 파티를 하는 것같이 되었고, 경외심이 결여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남용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는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편지는 본질적으로 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는 가혹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그의 편지를 받아들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편지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한 것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올 것이기에 디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실 바울은 협박을 받아 에베소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큰 소동이 있었고 바울의 생명에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잠시 후에 우리에게 말하겠지만, 그의 편지가 고린도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몹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영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역사하시고 계셨지만 그는 이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들떠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로 갔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으며 그의 편지에 대한 반응의 말을 디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빌립보에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늦어진 것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소동으로 인하여 그의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오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바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아직까지 가지 못한 이유와 조만간 갈 그의 의향을 설명하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1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그의 편지에는 근심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고, 또 힐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심하기를, 내가 슬픈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망치를 들고 징계하는 선생으로 가서 그들을 다시 치기를 원치 않노라. 나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 그 편지는 근심과 슬픔으로 쓴 것이지만, 내가 갈 때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이것은 불가피한 교정과 견책입니다)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자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또 너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노라. 너희들을 보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슬프게 만든 바로 그들이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호되게 쳤기 때문이라. 나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노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이 나로 인하여 슬프게 된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이로다.

**3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यो.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줄**

**확신함이로라.**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라. 내가 갈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함이라.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때 나는 슬픔으로 만나기를 원치 않으며, 예수님 안에서 단지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노라.

**4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첫 번째 편지를 말하고 있음) 예레미야는 우는 선지자로 불려졌습니다. 아마 바울은 우는 사도로 불려도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주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첫 번째 편지는 그의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썼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말하기를, 내가 삼 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람들을 위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것을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함이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수 백 년간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항상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나도 바울의 본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또 주님과 교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마음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로마서(9:3절)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의 큰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편지에 대해 난해한 점은 목소리의 어조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있어서의 단점은 목소리의 어조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나는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자주 잘못된 어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은 잘못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교하시기 위해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절) 아담아, 어디 있느냐? 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의 목소리의 어조를 마치 체포하러온 경찰관처럼 가혹하고 꾸짖는 어조로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한 심령의 아버지의 목소리의 어조로 듣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한 목소리의 어조로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썼을 때의 그의 마음의 상태를 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압적인 문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심히 괴로워하며,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가 주님께로 인도했던 자녀들이 타락하였고, 그들이 미혹되어 잘못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첫 번째 서신 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들 가운데 있는 악을

목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근친상간의 관계의 경우가 있었는데, 한 젊은 남자가 그의 아버지의 부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목인하고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리만큼 관대하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 편지 쓰기를, 그 자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도록 그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울이 그들에게 하도록 제의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를 고린도 교회에서 추방 또는 파문하였으며, 이에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로부터 추방당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다.** 너희들 중 많은 사람이 우리의 충고를 따랐고 이런 사람을 멀리하였도다.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그가 회개 했으니, 그를 용서해 줄 때가 왔도다. 다시 그를 교제 안으로 받아드릴 때가 왔으니, 그래야 그가 더 심한 슬픔과 고통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는 용서의 여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교제 안으로 다시 회복하게 할 여지가 있어야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물론 그것은 비극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죄 중에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자백이 있을 때, 즉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있는 온전한 교제 안으로 다시 그 사람을 데려와서 회복시킬 여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가혹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떤 면에서 영원히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는 당신과 이제 영원히 끝이라는 태도 말입니다. 그러나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을 다시 교제 안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여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 6:1) 말하기를, 만일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한 그 자를 회복시키도록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이제 바울은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

**9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그러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의 일부는 너희가 참으로 주님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함이라.

**10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기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임명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요한복음 20:23).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엄한 권위가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의 권위로서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대표로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용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에게 준 예수님의 위임의 결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물론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고해소가 있고 신부에 의해 죄를 사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밋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그녀를 그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게했을 때, 우리는 그가 밋세바에게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다윗이 죽게한 밋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죄를 자백했고(시편 51:4)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중풍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누가복음 5:20-21), 그들이 지붕에서 그 병자를 줄에 달아 내렸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화가 나서 참람한 말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죄를 범했다고 자백하고,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사단이 와서 말하길,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냐? 고 말합니다. 너는 네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뭐 용서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 같으냐?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목사로서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권한으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요한일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예, 당신은 죄를 자백했고 또 용서함을 구한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포기하기 싫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 당신은 용서를 받았고, 또 자, 당신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자백했고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또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또한 그 사역에 장엄한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오면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들에게 손을 얹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든가 하는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택하셨고,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손을 그들에게 얹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손을 당신에게 얹는 것으로 당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나를 통한 주님의 손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또는 앞에서 나는 그것을 용서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요, 우리는 주님의 발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들려올라 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것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들은 사도행전에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인 지금은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계속하셨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셨으며,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가르치심을 계속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들이며, 또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것을 말하고 있노라.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앞에서 용서했습니다.

**11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바가 아니로라.**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단의 궤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또 충돌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첫째로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육적인 면으로 그것에 끌려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인해 거기 끌려 들어가 자신에게 소리지르거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사단은 당신을 찌소리 못하게 해치울 수 있는 육적인 부분으로 당신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적의 공격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충돌로 되돌아가지 말고 영적 무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4절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적의 이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많은 가정과 많은 사람들의 삶에 견고한 요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과 육의 싸움으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면으로 이런 일에 끌려들어가서 화를 내고, 또 분노하며, 미친 듯이 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문제임을 인식치 못하고 곧장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끔찍한 말들을 하는

것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단의 공격에 대한 영적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것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육신적인 면으로 끌려들어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영적본질을 인식한다면, 이것은 영적전쟁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11-18)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나는 사단을 대항하여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사단은 결정적인 강점을 갖고 있지만,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나는 벌써 이겼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만일 내가 계속해서 영에 속해 있고 영적 영역 안에 있다면 나에게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끊임없이 나를 육신적인 영역 하에 두려고 노력하는 사단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사단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는 것 중에서, 첫째로, 이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둘째로, 그 사단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4: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호하심으로 정정당당히 서라!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단의 공격에 저항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유다서(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당신과 사단 사이에 있게 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 다음 셋째로, 세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단을 패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패배당한 적입니다! 당신은 사단이 도망가야만 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사단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과 16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울의 반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으므로 네가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 사울과 내 사이가 현재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사울이 내가 베들레헴에 내려 갔다함을 듣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가야할 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고, 아주 잘 생기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 보이는 이새의 장남을 보고 그는 아마도 이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을 모두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쑥이 남았는데 그는 사춘기 소년으로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니라!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아직도 왕위에 앉아 있었고 사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정당한 왕이었으나 사울이 아직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 통치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속하여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이기셨고 또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옷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군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울처럼 사단이 아직 왕위에 있어서, 예수께서 군림하시어 통치하시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패배를 당했으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가 행하고 있는 권위와 능력은 빼앗긴 것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위와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사단에게 대항할 때, 사단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패배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대항하고 사단이 잡고 있는 영역에서 그를 강제로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즉 당신의 부모라든지 자식이 사단에게 꼭 잡혀있거나, 사단의 지배력 아래 있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능력에 대항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할 때, 사단을 그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빼앗긴 권위 밖에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사단은 매우 뻔뻔스럽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속하지도 않은 곳에 가고 또 강제로 나가도록 가해지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사단과 그의 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와 그를 영역 밖으로 내어 쫓을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술책에 대해 말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기에 있는 가장 약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단은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단을 대항하여 설 수 있는 이 권위와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그것은 바울이 큰 폭동으로 그의 생명에 위협을 받아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던 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왔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영광스러운 문을 여셨습니다.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로 인해 엄한 편지를 보내었어야만 했던 것으로 인해 불안했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나서 고린도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바울은 그리스로 건너가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에 디도가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난번 편지인, 고린도전서 15:57절에 바울은 예수께서 사망의 쏘는 것을 제거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시 그 기쁨과 찬양을 올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둘 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직면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그 승리 안에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사단을 패배시키신 주님의 완성된 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풍미, 좋은 풍취,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광스러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향기와 풍미가 실제로 스며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가면, 당신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달콤함 때문에 그 방은 당신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변해 집니다.

**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시고 또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콤한 풍미와 냄새며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향기이고 심지어 멸망하는 자들에게 까지도 아름다운 향기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접했지만,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을 생각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중의 몇은 단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영광과 의회와 공공 광장 등이 있는 로마 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작은 지역인 이곳에 있는 12명의 남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말로 이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에 족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2장이 끝나므로 인해 연결이 안되지만, 다음 장의 3장 5절에 가면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감당하겠는가?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은 모든 것에 족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는 모든 것에 족한 하나님(the all sufficient One), 전능하신 하나님이라(El Shaddai) 고 하셨습니다.

**17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변개시키지)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요점은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매매합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전화 매매 기술을 사용합니다. 편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위급 상황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매우 현저하게 알려진 한 봉사 단체는 오는 12월의 위기에 관한 간행물을 우편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을 경제적 위기를 대비하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함을 구하는 것을 우송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타락시키는 다른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시키려고 하거나 번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타락시키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술책들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책임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것이 온전히 순전한 사역이었음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허위 긴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을 만든다거나 어떤 술수를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당신을 대표하기 위해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산하게 되어 파산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천 산 위의 목축들의 주인이시며, 또한 목축들이 풀 뜯어 먹는 언덕들도 주님의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사람들을 의지하셔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시며 도리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잘못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파산지경으로 가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구걸하기 위해 술수를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지원해 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공급해주실 수 없으신 분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또 공급해 주신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축복인지 아마도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나는 오래 전에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은퇴하는 문제에 대해 한 동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바쁘게 하셔서 나는 나의 침대 옆에 작은 표지를 붙였습니다. 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이 지구에 살게 하셨고 나는 그것을 이루는데 너무 뒤져 있어서 아마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달 간부 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 갈보리 채플의 사역을 위해 너무나도 넘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캠프와 트윈 픽과 유리에타에 있는 수양회관들 그리고 성경대학과 또 전국에 퍼져 있는 65개의 방송국 등,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빚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 하였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족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거듭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신뢰한 자들의 믿음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할 바깥세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그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자산과 기회를 주심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시고 계신 일들을 계속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